

불교식 가정제사 표준화 가능할까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정호)이 1년 동안 연구해 발간 할 예정인 <불교 상 제례 안내서>에 담긴 '불교식 가정제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제44차 포교정책연찬회서

'불교식 제사' 표준화 논의

"유가식 제사의 흡수할 부분은 과감히 흡수하고,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는 것이 불교식 가정제사의 표준화를 이루는 길이다." (이송자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원장),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고 할지라도 불자들의 실제 생활에서 정착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 종단 차원에서 불교의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성수 불교신문 차장) 2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불교식 가정 제사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라는 주제로 연 제44회 포교정책연찬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핵가족화 및 가치관 변화로 일어나는 가정 제사에 대한 갈등 문제의 재정립이 시급한 시점에서 불교식 가정제사를 표준화해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간 화합을 도

모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불교식 가정제사의 정립을 위한 시론'을 발표한 구미례 불교 상제례문화연구원 원장은 "불교와 제사의 문제는 종단 내에서도 아직까지 합일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많다. 우선 '불교제사'라고 하면 사람에 의거해 제(齋)의 형식으로 지내는 것과, 가정에 서 지내는 불교식 제사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구미례 위원은 "불교식 가정제사"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제사'라는 용어를 불교와 연결 짓는 것 자체에 대해 금기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용어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교제사의 의미에 대해 공론화된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구 위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불교식 가정제사를 '고인에 대한 추모와 공경' 뿐만 아니라 '천도'의 의미로 보는가 하면 '추모와 조상공양'의 의미로 보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불교식 가정제사 시연회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성수 한국표준협회 편집위원은 "불교식 제사가 사찰에서 봉행하는 시식을 짜깁기 했다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오는 시연된 가정 제사 의례는 같지도 않고 비 불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천도'라는 개념을 추천 또는 추천이라는 용어와 사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송자 불교생활의례문화원장은 "이번 불교식 가정제사는 포교원에서 2006년 출판안 <한글통일법요집 천도·다비의식집>에 수록된 의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의식은 목탁과 죽비가 아닌 읽는 식으로도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불교의례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디지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성수 불교신문 차장은 "제사 문제로 필박을 받은바 있는 천주교가 교단 차원에서 제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그 이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불교 또한 종단 차원의 입장 정리와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이어 "불자들의 가정에서 불교의례가 실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며,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발휘하는 스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 홍보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나은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봉사 전 조계사에서 기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팀 '밝은 구슬' 이상희 팀장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이웃들이 많다. 함께 사는 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현대불교신문에서는 매주 우리시대 '라후라존자'를 찾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들어본다.



"저 분들 중 전생의 제 부모님이 계시지도 모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업장소멸과 부처님 가르침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에서 2002년부터 9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상희 팀장(67·사진)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봉사를 하는 순간도, 봉사를 하며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팀장은 2004년부터는 봉사활동 동아리 '밝은 구슬'을 만들어 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챙겨드리는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총 13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밝은 구슬'은 대부분 7-8년 이상 된 베테랑들이다. 개인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 '인연'을 만나 함께하는 팀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상희 팀장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자주 다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가까워졌고,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활동하기 전에도 다니던 사찰의 일을 도우며 '봉사'와 가까워졌다.

"일을 돕던 것이 몸에 익숙해지면서 봉사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봉사는 육바라미와도 맞닿아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큰 우환이 없는 것도 다 봉사를 열심히 한 덕분이 것 같아요."

이상희 팀장은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날이면 집에서 조금 일찍 나온다. 봉사활동 전에 센터 인근에 위치한 조계사에 들러 기도를 올리고 금강경을 읽기 위해서다. 평소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다는 이 팀장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3베라도 올릴 것을 권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봉사활동은 멈추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봉사는 이제 제 삶의 이유이자 낙입니다.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몇 시간 안에 보살펴드릴 수 있는 일이 봉사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봉사활동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어르신 대상의 봉사활동은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 더욱 신경 써야한다.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에게는 봉사하려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절에 들려 기도만 올리면서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할 때도 이상희 팀장은 봉사를 권한다. 봉사를 통한 실천이 뒷받침돼야 기도도 실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몸이 아파도,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는 이제 그와 떼어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은 것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평생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봉사가 기도와, 봉사가 부처님인 것 같습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iumnet

외국인 위한 템플스테이 앱 개발

불교문화사업단, 홍보용 캐릭터도 선보여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위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개발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은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 정보는 물론 사찰 장건설화 및 주변 관광지 갤러리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동영상 및 사진, 사찰 기본 예절 등을 볼 수 있도록 'Templestay APP'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앱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직접 앱을 설치해 3G와 와이파이(WiFi)망 접속이 어려

운 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2011년 캐릭터(사진)를 개발했다. 캐릭터는 불교문화 상품 및 홍보용품 디자인으로 활용해 템플스테이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묵기법을 사용해 한국전통의 느낌을 살린 캐릭터는 동자승이 발우공양, 참선, 염주만들기, 합장, 사물(四物)치기 등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밖에도 목탁, 죽비, 108염주, 단주, 목어, 범종, 발우기, 풍경 등의 캐릭터도 새롭게 선보였다. 개발된 캐릭터는 배너 및 안내물, 명찰, 각종 서식류 등에 사용된다. 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사찰에서 활용할 파워포인트 템플릿, 홍보용 리플렛 포맷 등에도 공통 디자인 가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상연 기자

'지역과 소통'·'일자리 창출' 주력

서울·종로 노인복지관 신년계획

신(新)노인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2011년 운영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2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인복지관을 통해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지역 사회 누구라도 오고 싶은 열린 복지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관은 평균 연령 69세의 전문어르신인 드인 '상상랜드'를 통해 종로구 주민들과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인문학 아카데미 '종로를 거닐며 나를 찾다'를 개설해 종로의 숨은 명소를 돌아보고 삶을 성찰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은 2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으로

융합된 조직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하며 멀티 사회복지 실천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센터는 기획사업부를 개설해 후원기업과 수혜자를 연결하는 자원연계팀을 강화해 기업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가섭 스님은 "어르신들이 노년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이에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책다실-삼가연정'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0주년을 맞이해 오는 4월 어르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1·3세대가 함께하는 걷기대회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발자취를 살피는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고 10주년 기념 자료집 등을 발간한다. 이나은 기자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찾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3월 3일 미래복지포럼 개최

북한이탈주민 입국 2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

은 3월 3일 2시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원'을 주제로 미래복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김학성 부장(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나선다. 이나은 기자

"친견용 명품(名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 미리 알아 먼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임CD 프로그램과 육임 친견용 활용서 -

- 지난 10년에 걸쳐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특히 귀신·빌미부정·귀물·묘지탈 적시 및 그 해소 방법이 백미입니다. 유사(類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오해초보자도 즉시 자신있게 활용하여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효사 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효사 활인천역집 2011 완결 최종판 사적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 원터치 기능에 의한 당면 정황을 미리 알아 순서대로 철저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승인 없이 여러곳에 장차할 수 있습니다. 정가 500만원

曉史集 第二十七集

鼓龜命數

고 귀 명 수

- 육임운명판단법 -
(第1券 甲子旬)

(甲子日·乙丑日·丙寅日·丁卯日·戊辰日·己巳日·庚午日·辛未日·壬申日·癸酉日)

鼓卜子 曉史 共著
龜玉子 乙山

도서출판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사주를 빼지 않고도 방문 시간별로 즉시 펼쳐 한 면 한 눈에 정확한 일생사 및 나이별 운세 등등 인생전반을 미리 판단하도록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60갑자일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B4규격 정가 350만원

www.taotemple.net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 육임컨텐츠개발전문회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